

정진 발원

불제자인 사부대중 모두는 부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받들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냉철하게 점검하며, 새로운 변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정예하의 증명으로 시작한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은 어느덧 뜻 깊은 회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원력과 정진의 힘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와 현안을 지혜롭게 해소하고자 합니다.

1000일 정진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사부대중 지도자들이 열린 광장에서 불교 중흥과 우리 문제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성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불교가, 우리 종단이, 우리 종도들이 불교의 본래 목적인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진정한 대승불교인으로 살아가자는 간절한 발원입니다.

이러한 다짐을 실천에 나가며, 총본산 성역화를 통해 불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스님들의 장래를 위해 한층 복지를 장려할 것이며, 중앙과 교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종단의 미래를 차분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하고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힘찬 도약으로 삼겠습니다.

정진을 통해 불자로서 한국불교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차분하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낮추고, 비우고, 나누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화로운 삶을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서있는 바로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곧바로 실천하고, 종단과 불자의 염원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현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주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전심전력으로 바로 설 때, 불교는

더욱 빛이 날 것이기에 우리의 정진으로 밝힌 등불이 한국불교의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기도는 보살의 정신이며, 부처의 삶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살의 행위를, 부처의 행위를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나아갈 길로 받아들여 쉽 없이 정진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자발적인 마음이 모여 한국 불교를 희망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증명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되어 뜻 생명의 영원인 생명평화의 삶, 생명평화의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마하반야바라밀